

2026년
5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Priorities and opportunities for clean energy transitions to advance health in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의 우선순위와 기회

■ 연구 요약

에너지는 보건과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사회·정치적 소외 계층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으면서도 오염이 가장 심한 연료(즉,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보건과 기후에 해로운 바이오매스를 대체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명의 사람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네 가지 우선 분야를 제시한다. 이는 (1) 오염 유발 연료 사용의 신속한 감축, (2)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직접적인 보건 혜택 제공, (3) 에너지 전환과 기후 완화 및 적응 목표 간 연계, (4)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에너지 접근성에서 지속되는 불평등 해소이다.

또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과 청정에너지와 보건·의료·영양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며, 인프라 및 도시 계획과 청정에너지 간의 유기적 연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을 제시한다.

■ 연구 함의

청정에너지는 단순히 가정에 공급되는 것을 넘어, 오염을 유발하는 연료를 완전히 대체해야 할 것이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 건강 증진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기후 회복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 본 연구는 저소득국 및 중소득 국가의 에너지와 보건에 관한 5부작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연구입니다. 시리즈의 모든 연구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학술지명: The Lancet Global Health
- 문서종류: Article (Series)
- 발행연월: 2026.4. (Volume 14, Issue 4)
- 저자: Carlos F Gould et al.
- 주 제: Clean energy transition
- 키 워 드: Clean energy, Energy transition, Health, low-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 출 처: <https://shorturl.at/XGswE>

Citizens' aid preferences amid state collapse: Experimental evidence from Haiti

국가 붕괴 상황 속 시민들의 원조 선호도: 아이티(Haiti)의 실험적 증거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extreme fragility situations)의 시민들이 어떤 주체가 재건 및 구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가 권위가 붕괴할 때, 그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아가 사회경제적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3/2024년 겨울 아이티에서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설문조사 진행 중 갱단이 반란을 일으켜 중앙 정부가 붕괴하였고, 이는 제도적 붕괴 전후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연 실험 상황을 만들어냈다.

■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시민들은 외국 비정부기구(NGO)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와 지역 현안을 외면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아이티 내 외국 NGO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계층에 따른 선호의 변화이다. 부유층(affluent)은 국가 붕괴 이후 오히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기존 공여국 채널인 NGO를 선호하게 된 반면, 원조 수혜 대상인 비부유층(non-affluent)은 꾸준히 유지해 왔던 NGO에 대한 선호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돌아섰다. 그동안 비부유층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정부 기관만큼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되었으나, 국가 붕괴 상황에서는 NGO보다 우선적인 대안으로 선택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원조를 외부 비국가(non-state)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일반적 공여국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원조와 관련된 피해 경험이 있다면 국가 분쟁 상황에서 원조 채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수원국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원조를 지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여국이 가장 목소리가 큰 지역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원조 배분이 실제 수혜자가 아닌 부유층의 선호에 맞춰질 위험이 있으며, 비부유층이 선호하는 지자체 경로는 여전히 엘리트나 무장 단체에 의해 장악될 위험이 있다. 분쟁 상황에서 선호도는 진정한 지지보다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이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사한 딜레마가 다른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에서도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관/학술지명: Development policy review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4. (Volume 14, Issue 4)
- 저 자: Ana Isabel López García and Sarah Berens
- 주 제: Foreign aid & Conflict
- 키 워 드: Conflict, Foreign aid, fragility, Haiti, Public opinion
- 출 처: <https://doi.org/10.1111/dpr.70066>

공감의 행동: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여성
난민 기업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역학 분석

크라우드펀딩은 여성 난민들에게 유망한 대안이 되고 있으며, 난민 수용소 내외부의 맥락 모두에서 창업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을 극복하게 해준다. 또한 이는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화하고 기업이 활동에서 성평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Generative AI as a Weapon of War in Iran

이란의 전쟁 도구로서 생성형 AI

■ 보고서 요약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합동 군사 작전인 '에픽 퓨리 작전'을 전격 단행하여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군사 기지, 그리고 지도부를 정밀 타격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소셜 미디어에는 텔아비브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이란의 미군 전함에 대한 성공적인 미사일 공격, 그리고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허위 영상들로 넘쳐났다. 이 영상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란 전쟁과 관련 없는 영상이었으며, 이란 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보이는 대규모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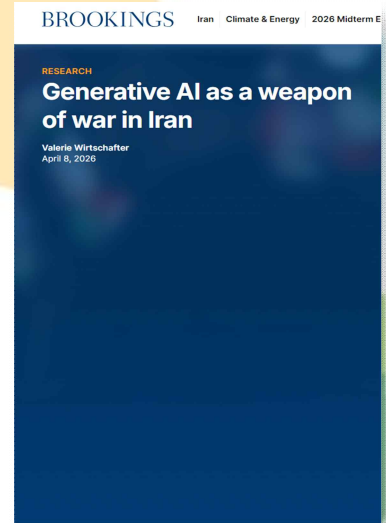
위기 상황에서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콘텐츠가 급증하는 현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급 불균형, 소셜 플랫폼 X를 포함한 수익 공유 프로그램¹, 플랫폼 정책 변경의 여파 등으로 인해 허위 주장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사력에 비해 전통적 전력이 부족한 이란은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캠페인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정보전의 핵심 무기가 되었으며, 진짜 영상마저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생성형 AI는 단순한 눈속임을 넘어 확고한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분쟁 상황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치명적인 변수로 자리 잡았음을 경고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정보 조작 속에서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¹ 소셜 플랫폼 X를 포함한 수익 공유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게시물이 생성한 노출 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바이럴 효과를 일으키는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직접적인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 기관/학술지명: Brookings Institute
- 문서종류: Research
- 발행연월: 2026.4.
- 저 자: Valerie Wirtschafter
- 주 제: Artificial Intelligence
- 키 워 드: Iran war, AI generated contents, Deep fake, Social media
- 출 처: <https://shorturl.at/gRIQK>